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제17991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8년 2월 22일 (음력 1월 16일) 금요일

수완신도시 파오레
분양문의 (062) 367-3000

풍년 기원 고싸움놀이 정월대보름인 21일 광주시 남구 칠석동 고싸움놀이 전수관에서 한해 풍년과 마을의 화합을 기원하는 고싸움 놀이가 열렸다. 중요무형문화제 제33호인 고싸움놀이는 지난 1969년 발굴·재현돼 한국인의 진취적인 기상과 패기를 알리는 세계적인 민속놀이로 자리잡았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1석 늘고 전남 1석 줄고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국회의원 299명 현행 유지

광주, 광산 분구·서구 유지 8석으로

전남, 강진·완도 인근에 흡수…12석

국회 정개특위에서 광주지역 선거구를 1개 늘리고 전남지역 선거구를 1개 줄이기로 결정함에 따라 18대 국회에서의 광주·전남지역 의석수는 17대 국회에서와 같이 20석을 유지하게 됐다. 〈관련기사 3면〉

그러나 전남지역 선거구는 인구 하한선이 무너진 영광·함평과 강진·완도의 지역구 조정으로 상당한 지형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국회 정개특위는 21일 논란 끝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고, 22일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18대 국회 국회의원 의석수는 현행 299석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보다 2명 늘어난 245명으로 정하고 비례대표 의원 수를 2명 줄여 54명으로 확정했다.

또, 인구 하한선은 10만4천 명으로, 인구 상한선을 31만2천 명으로 확정,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비율을 3대1 범위 내로 설정했다.

특히, 정개특위에서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하되 기존에 형성된 선거구를 최대한 유지한다는데 여·야가 의견을 함께 했다.

이에 따라 광주에서는 광산구가 2개의 지역구로 분구되고 서구가 현행 2개의 선거구를 유지함에 따라 17대 국회에 비해 1석이 늘어난 8석의 의석을 확보하게 됐다.

전남에서는 통폐합이 거론됐던 여수가 현행 2개의 선거구를 유지하게 됐으나 인구 하한선이 무너진 영광·함평과 강진·완도의 지역구 조정으로 17대 국회에 비해 1석이 줄어든 12개의 의석을 확보하게 됐다.

18대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안(광주·전남)

	17대	18대	비고
광주	동구 서구갑 서구을 북구갑 북구을 남구 광산구	동구 서구갑 서구을 북구갑 북구을 남구 광산구갑 광산구을	7석→8석 ※광산구 분구
전남	목포 순천 여수갑 여수을 광양·구례 나주·화순 무안·신안 고흥·보성 장성·담양·곡성 함평·영광 영암·장흥 해남·진도 강진·완도	목포 순천 여수갑 여수을 광양 나주·화순 무안·신안 고흥·보성 담양·곡성·구례 함평·영광·장성 장흥·영암·강진 해남·진도·완도	13석→12석 ※여수 2석 유지 ※강진·완도·장성·구례는 인근 선거구로 흡수

의원정수 299명(지역구 245석·비례대표 54석)
인구 상한 31만 2천명/하한 10만 4천명

이에 따라 광주지역 선거구는 ▲동구 ▲서구 갑·을 ▲남구 ▲북구 갑·을 ▲광산구 갑· 을 등으로 1개가 늘었다.

전남지역 지역구는 ▲여수시 갑·을 ▲광양시 ▲목포시 ▲순천시 ▲담양·곡성·구례 ▲함평·영광·장성 ▲해남·진도·완도 ▲장흥·영암·강진 ▲무안·신안 ▲고흥·보성 ▲나주·화순 등으로 재편됐다.

그러나 해남·진도·완도의 지역구는 한 개의 선거구로 유지하기에는 인구나 면적 면에서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정개특위의 막판 지역구 조정에 따라, 지역구가 붕괴되거나 변화된 지역의 현역 의원과 예비 후보들의 반발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정개특위 관계자는 "지역구가 붕괴되거나 분구가 되지 않은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여·야의 합의 처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변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며 "22일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일부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으나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013 하계U대회 광주에서

생산·부가효과 1조4천억 지역발전의 '기폭제' 기대

❶ 유치 배경과 기대 효과

세계 최대의 '대학생 스포츠 제전'이자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인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개최지 결정(5월31일)이 21일로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U대회가 성공적으로 유치되면 광주는 지역경제·관광활성화는 물론 체육 인프라 확충, 국제도시 도약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 꺼번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가 U대회 유치에 다걸기(올인)하는 이유다. U대회 광주 유치의 배경과 기대효과, 유치 절차·전략, 지역민 참여 이끌기 등을 세 차례로 나눠 살펴본다.

100만 서명운동·10만 지원단 모집

박광태 광주시장과 이희범 유치위원장 등 '2013 하계U대회 광주유치단'은 지난 13일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본부를 방문, 대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해외 유치활동에 돌입했다. 유치 의향을 내비쳤던 5개 국, 7개 도시 가운데 가장 빠른 행보였다.

시민 참여 열기 고조

내부적으로는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 유치 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100만 서명운동과 10만명 규모의 범시민지원단 모집에 나섰다.

광주시가 이처럼 하계U대회 유치에 주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파급 효가가 큰 매머드급 국제 대회인만큼 지역 전반에 걸쳐 발전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 인구가 급증하고 스포츠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세계 주요 도시들은 국제 대회 유치를 통한 스포츠 마케팅을 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 2008년 올림픽 유치로 벌써부터 올림픽 특수를 만끽하고 있는 중국 베이징과 선전(2011년 하계U대회), 러시아의 모스크바(2013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소치(2014년 동계올림픽)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 주요 도시와 지자체들도 국제 규모의 스포츠 행사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2002년 아시안게임을 개최한 부산은 또 다시 2020년 하계 올림픽 유치에 도전장을 냈고 대구는 2011년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인천은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확정됐다. 강원도 평창은 동계 올림픽(2018년) 유치를 위한 '3수 도전'에 나섰다.

스포츠 마케팅 각광

하지만 광주는 그동안 스포츠마케팅 분야에서 다른 국내 대도시에 비해 뒤쳐져 있었다. 하계U대회가 유치되면 처음으로 대규모 국제 대회를 치르게 된다.

U대회는 인권·평화의 도시이자 문화·교육의 중심지인 광주의 이미지와도 맞아 떨어진다.

박 시장은 지난 13일 FISU 에리크 생트롱 사무총장에게 대회 유치 신청서를 전달하면서 "전 세계 대학생들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고용유발효과 3만명

유니버시아드의 정신은 민주와 인권, 평화의 도시를 지향하는 광주 정신과 부합한다"며 "광주비엔날레를 비롯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과 시민들의 열정을 모아 어느 대회보다 알차고 성대한 젊은이들의 축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회 유치에 따른 기대 효과도 막대하다. 경제적 측면에서 생산유발효과 9천500억원, 부가가치효과 4천500억원, 고용유발효과는 3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토서남권의 중추 국제도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도시마케팅 효과와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 관광진흥 및 국위선양 등 부가적인 효과도 막대하다. 지역 체육 진흥은 물론 다른 도시에 비해 부족한 스포츠 인프라 구축도 가속화되는 등 지역전반에 걸쳐 성장과 발전의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12 여수 엑스포에 이어 광주시가 이듬해 하계U대회를 개최하면 광주·전남이 대규모 국제 행사를 잇따라 열게 돼 '지역 중흥'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李 당선인 모두 무혐의

특검, 도곡동 땅은 이상은씨 소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관련 의혹을 수사한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21일 주가조작이나 횡령, ㈜다스·BBK 및 부동산 차명소유, 서울 상암동 DMC 특혜분양 등 이 당선인을 둘러싼 모든 의혹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관련기사 3면〉

또 서울 도곡동 땅에 대한 이 당선인의 맏형 상은씨의 지분은 "제3자의 차명 재산으로 보인다"는 검찰 수사 결과와 달리 이상은씨 본인의 소유라는 결론을 내렸다. 정호영 특별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수사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김경준씨가 주장하던 수사검사의 회유 협박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주가조작 등 BBK관련 의혹에 대해 "김경준씨가 단독으로 BBK 투자금을 사용해 옵셔널 벤처스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을 인수했고 경영권 인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가조작을 벌였다"며 "당선인은 주가조작에 관여한 바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이 당선인의 맏형 상은씨 명의의 서울 도곡동 땅 지분과 관련 "매입 당시 이씨의 자금력이 소명되고 이 땅이 이 당선인의 처남 김재정씨와 공동 목적으로 관리·사용됐으며 매각 이후에도 대금이 공동 관리되다 균등 분배된 뒤 각자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상은씨 소유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후원회 광고' 접수합니다
광주일보 광고마케팅국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직하고 싶다'는 대학생,
'대학등록금 1,000만원 시대', 이제 해결해야 합니다
후원회 사무소 :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8-7번지(동광주약국 3층)/전화 : 062) 251-1017
광주지검 부장검사 출신 김경진
학 력
· 전남 장성 生(43세)
· 광주 백운초, 무진중, 금호고 졸
· 고려대 법학과 졸, 동 대학원 수료
경력 및 사회활동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 前 대검찰청 검찰제도 연구관
· 前 서울중앙 검찰청 검사
· 前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現 법무법인 이인 대표
광주 북구(갑)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김경진 후원회
여러분의 따뜻한 후원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 김경진 후원회 (후원회장 임진석) ●
농협 601177-56-309077 (예금주:김옥진)
후원 방법
- 인터넷 카페 (http://cafe.daum.net/kimkj0081 에서 회원가입 및 후원가능
- 직접 김경진후원회 예금계좌로 이체 가능
후원 안내
- 누구나 후원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은 연간 총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 회원 가입하지 않아도 후원할 수 있습니다.
- 후원하는 금액은 각종 세금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광주 군용비행장 이전 되나

국방부, 타당성·민원 해소 용역 발주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생활 침해로 끊임없이 이전 민원이 제기돼온 광주 공군비행장(제1 전투비행단)의 이전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방부가 최근 '광주기지 이전 타당성 및 민원해소 방안 검토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을 맡은 한국국방연구원은 오는 10월까지 광주 군사공항의 이전 타당성 조사와 함께 새로운 이전 적지, 주민 민원해소 방안 등 용역 결과를 제출할 계획이다.

군사공항이 이전될 경우 광산구 도산동, 송정1동, 신흥동과 서구 마륵동 등 이 일대 주민 1만 5천여 명이 소음 공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7대 문화권 가운데 '교육문화권'으로 지정된 군비행장 부근인 서구 마륵동 공군 탄약고 일대에 대한 개발사업도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용섭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장관 재직 시절 군용공항 이전 문제를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공군 비행장이 빨리 이전될 수 있도록 국방부, 건교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제43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http://marathon.kwangju.co.kr ☎ 062/220-0541